



‘행복한 동행’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27〉 펫 아로마테라피스트 임금숙씨

“은은한 아로마 향기로 반려동물 스트레스 줄여주세요”



임금숙씨와 반려견 쫘꼬

허브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이용해 심신 다스리는 건강 요법
에센스·입욕제·힐링밤 등 다양... 후각 예민한 강아지 효과 빨라

이번 시리즈를 제작하면서 가장 관심이 갔던 분야는 반려동물을 위한 특별한 ‘무언가’였다. 반려동물이 단순히 함께 사는 동물을 넘어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존재이자 가족이 됐기 때문이다.

흔히 쓰이는 ‘밥만 먹고 사는 시대가 지났다’는 말처럼 먹고 사는 일이 아닌 새로운 취미, 여가, 건강 등에 중점을 둔 세상이 펼쳐졌고, 이는 반려동물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에게 가족 못지않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호텔, 한의원, 스파, 미술관 등이 화제

가 되며 아이들을 위한 수제간식 등 건강한 먹거리도 눈길을 끈다.

최근에는 좀 더 건강한 방법으로 나의 반려동물을 케어해주기 위해 반려동물을 위한 아로마 테라피 슌을 찾는 이들도 늘었다. 그래서 이번엔 ‘펫 아로마테라피스트’를 만났다.

아로마 테라피는 허브와 같은 식물의 꽃잎이나 꽃, 열매, 뿌리 등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의 향을 이용해 심신을 다스리는 건강 요법이다.

펫 아로마테라피스트 임금숙씨를 만나기 위해 찾은 스파세중. (광주시 동구 서석로 49)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서 내려 입구에 들어서자 은은한 아로마 향기가 제일 먼저 다가온다.

첫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태교로 아로마테라피를 시작한 임 씨는 25년간 아로마테라피를 다루는 일을 해왔다. 펫 아로마테라피스트로 활동을 시작한 건 7년 전이다.

“처음 펫 아로마테라피를 접했을 때 이젠 꼭 배워야 되겠다 싶었어요. ‘애완동물’ 대신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지금처럼 잘 쓰이지 않을 때였죠. 그때 앞으로 반려동물의 수가 늘고, 사회적 인식과 구조가 바뀔거라는 걸 조금은 알았던 것 같아요.”

펫 아로마테라피는 반려동물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오일을 사용한 마사지를 통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반려동물 전용 오일을 활용, 심신안정과 더불어 원활한 교감을 기대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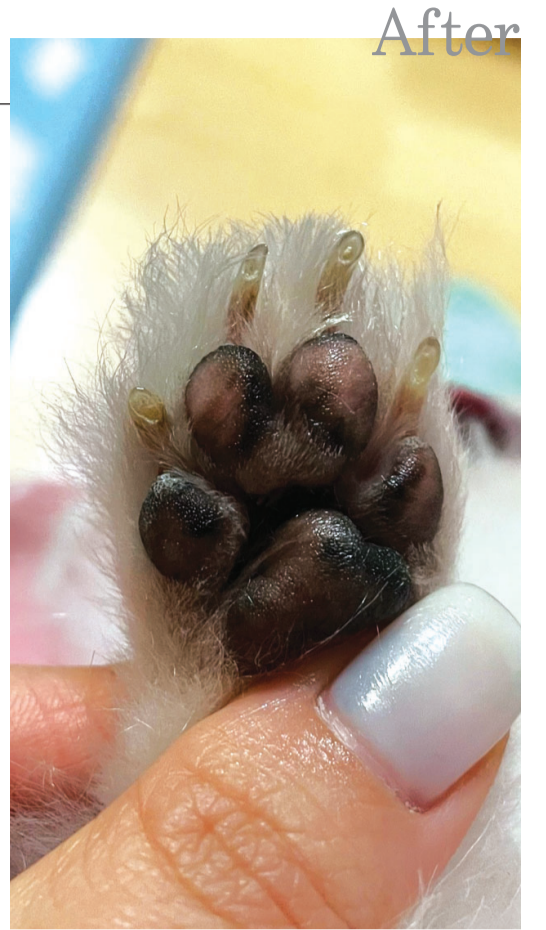
임 씨는 자신의 반려견인 토이푸들 ‘쫘꼬’도 아로



약초를 문쳐 만든 허브볼로 마사지를 받고 있는 모습.



펫 아로마테라피스트 임금숙씨가 직접 만든 반려견 전용 아로마 샴푸, 트리트먼트와 입욕제.



발바닥 습진이 심할 경우(왼쪽), 에센스와 힐링밤 등을 지속적으로 발라주면 붉은기가 가라앉고 촉촉해진다.

마테라피 효과를 많이 봤다고 말했다.

“쫘꼬가 2017년에 저희집에 왔는데, 전 주인의 학대로 분리불안 등을 겪고 있었고, 예민하고 질투도 심해 정서적으로 상태가 매우 안 좋았어요. 낫기도 엄청 짓었죠. 그래서 쫘꼬를 위해 뭘 해줄까 하다가 아로마 테라피를 해주기로 했어요. 먼저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라벤더 오일 등을 사용해 만든 디퓨저를 놓았고, 여기저기 마사지도 수시로 해줬어요. 목욕시킬 땐 당연히 아로마 오일로 만든 제품을 썼고요. 그랬더니 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강아지는 후각이 예민해서 효과가 빨리 나타나거든요. 어제도 쫘꼬는 아로마 오일로 만든 입욕제로 목욕을 하고 에센스도 발랐답니다. (웃음)”

쫘꼬가 사용하고 있는 발바닥 보습 크림, 힐링밤, 에센스처럼 펫 아로마테라피 제품들은 너무나도 다양하다. 임 씨는 사람처럼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샴푸, 린스, 치약, 비누, 바디워시, 입욕제, 스킨, 로션, 오일 등 거의 모든 제품을 아로마테라피 기법으로 만들어 반려동물에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밖에도 귀세정액, 그루밍스프레이 등도 주로 사용된다.

반려동물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오일로는 30가지가 있다. 심리 진정과 두통 등 신체의 통증

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캐모마일과 원기를 회복시키고 심신을 진정시켜주는 만다린, 안정감과 행복감을 갖게 하고 긴장과 수면장애완화에 효과적인 네롤리 등이다. 또 레몬그라스는 항균효과와 냄새 제거 효과가 있어 강아지 특유의 냄새를 잡아주기도 한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임 씨는 반려동물의 피부가 약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피부와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와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효능과 사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려견은 특히 후각이 발달해 냄새에 예민하기 때문에 시트러스 오일과 같은 향이 강한 오일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소화불량 완화에 효과가 있는 클로브 오일이나 관절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탱퍼 오일 등은 지속적으로 오랜기간 사용하면 독성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임 씨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아로마 마사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쫘꼬와 같은 토이푸들은 귀가 접혀있기 때문에 귀병이 잘 생길수 있어 귀병 예방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귀 마사지를 해주면 좋다. 양손으로 양쪽 귀를 가볍게 잡아준 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돌려주면 된다. 또, 반려견의 얼굴과 눈 주변을 마사지해 주면 신경계와 위가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어 자주 문질러 주는 것이 좋고, 관절 탈골 예방을 위해서는 다리뼈와 견드림이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타구니 쪽에는 림프절이 있어 독소배출에 좋다.

“이제는 반려동물의 신체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케어를 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반려인들이 펫 아로마테라피를 통해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쫘꼬처럼요.” /글·사진·전문재 기자 ej6621@

- ‘클로브 오일’ 소화 불량
- ‘탱퍼 오일’ 관절 통증
- ‘캐모마일’ 심리 진정·통증 완화
- ‘만다린’ 원기 회복·심신 안정
- ‘네롤리’ 긴장·수면장애 효과
- ‘레몬그라스’ 항균·냄새 제거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